

레볼루션 시놉시스

1 LINE:

LA 폭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인들이 인종 갈등의 사회,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법의 보호에서 소외 되자, 분연히 일어서 약탈과 방화, 기득권층의 음모로부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스스로 방어하고, 이루어 질 수 없는 혁명에 동참한다.

SHORT:

인종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LA 폭동, 흑인 지역과 백인 지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한국인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약탈과 방화의 직접적 표적이 되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 자경단을 조직, 코리아 타운을 방어하는 등 자위권을 발동 한다. 의무 복무한 군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중, 노년층이 중무장한 채 코리아 타운을 방어하고, 구만과 친구들이 주축이 된 KAYA (Korean American Young Adult) Team 은 코리아 타운을 순찰하며 폭동을 저지 하는 등 활동을 펼친다. 구만과 친구들은 우연찮게 동행하게 된 방송국 리포터 니콜과 함께, 폭도들에게 폭행당해 발이 묶인 친구를 구하러 사우스 센트럴로 출발한다. 폭동의 소용돌이를 피하는 와중, 의문스러운 경찰 폭력 현장에서 합류하게 된 과격 흑인 단체 - 블랙 팬더와 더불어, KAYA 팀원의 친척인 '삼촌'이 자체 방어하고 있는 스왑밋 (도매상가)으로 피신하게 된다. 블랙 팬더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찰 폭력 조작극을 펼쳐 폭동을 확산시키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지역 재건 사업권을 독식하려는 마피아,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FBI 세력이 '삼촌'과 구만 일행이 은신하고 있는 스왑밋을 포위한다. 과거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 정보기관의 고문실에서 악명을 떨치던 '삼촌'이 군대식 편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스왑밋, 그 장소에 피신한 방송국 리포터와 과격 사회 단체 블랙 팬더를 제거하려는 마피아의 공격,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모인 단체와 인종들이 격돌하던 스왑밋이 결국 무너지고, 남은 이들은 성취될 수 없는 이상적 혁명을 위해 트럭을 몰고 베벌리 힐즈로 진격 한다.

LONG:

80년대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고문을 당하고, 동지들을 밀고한 댓가로 풀려나 미국으로 반강제 출국 당한 구만, 트럭을 몰고 한인 타운의 물류를 운송하는 잡일을 하며 우울한 일상을 살아 간다. 그의 친구들 역시 허드렛 일을 하거나 백수로 살며, 밤낮으로 모여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일상이다. 방송국 리포터 초년병인 니콜은 FBI 내부인사와 마피아 간의 모종의 음모를 파헤쳐 특종을 터뜨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자, 보도국장 및 동료 카메라맨 - 믹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취재를 이어간다.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 판결을 기다리는 인파가 로스 앤젤레스 경찰국 앞에 모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일상적인 오후나 다름없다. 구만과 같은 운송 회사에서 일하는 사촌 대니, 물류 배송을 위해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통과하다가 백인 폭력 경관 무죄 판결로 인해 촉발된 초기 폭동의 현장에 휘말려 처참하게 집단 폭행당하는 와중 흑인 주민들에 의해 구출된다. 약탈과 방화를 앞세운 폭동이

확대되고, 베벌리 힐즈 백인 부촌 지역 쪽을 향한 폭도들의 진행 방향의 길목에 위치한 코리아 타운은, 폭동의 원인을 한 흑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주류 방송들, 보호 요청을 외면하는 경찰력 등에 의해, 태풍의 눈과 같은 위험 지역이 되어 버린다. 이에 코리아 타운을 탈출하길 중용하던 한인 라디오 방송국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말고 자체 무장을 통해 방어하자는 전략으로 선회하며 지역 동포들의 도움을 호소한다.

구만과 그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KAYA (Korean American Young Adult:한인 청년단) 팀이 무장을 하고 타운 순찰을 돌며 폭동이 코리아 타운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어하던 중, 대니가 사우스 센트럴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구출되어 한 흑인 가정에서 보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명하기 위해 출발한다. 방송을 위해 파견 나왔다가 우연찮게 구만 일행과 사우스 센트럴로 동행하게 된 니콜과 믹키, 대니를 구출하는 와중에 과격 흑인 단체-블랙 팬더를 희생자로 삼은 의문의 경찰 폭력 현장을 촬영하고 대규모 갱단에 쫓기게 된다.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폭도들, 급류가 쓸고 가듯 대규모 약탈이 벌어지는 상가들, 자신의 상점 밖에서 목놓아 울부짖는 사람들, 상점 주인과 폭도들의 총격전 등, 폭동 속 광란의 장면을 목격하며 그들이 피신처로 택한 곳은 구만의 친구-저스틴의 '삼촌'이 운영하는 스왑밋 (도매 상가).

한국 민주화 운동 당시, 한국 정보기관 내 고문실에서 악명높던 '삼촌'은 같이 이민 온 동료 직원, 선후배 등을 결집해 중무장 한 채, 스왑밋을 효율적으로 자체 경비하며 폭도와 약탈자들을 감금, 고문한다. 피신 온 구만 일행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블랙 팬더 일행을 강제 구금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대는 삼촌과 그의 세력. 한편 니콜이 이전부터 추적하던 FBI 내부 검은 세력과 마피아 갱단의 커넥션은 니콜이 우연히 녹화한 자신들의 경찰 폭력 조작 상황 비디오를 탈취하고 증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스왑밋을 포위, 공격한다. 일차적으로 잠입한 FBI 기동 타격대가 '삼촌'에게 포획되고, 니콜은 FBI 와 마피아가 경찰 폭력 비디오 조작을 통해 L.A.폭동을 확산시키고, 그로 인해 초토화된 지역 재건사업권을 독식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깨닫는다.

삼겹살과 소주 회식을 열어 스왑밋에 연류된 다인종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될 무렵, 어딘가 낮이 익은 '삼촌'과 알력이 발행하고, 그로 인해 감금, 폭행을 당하는 구만. 니콜이 촬영한 증거물 확보와 증인 제거를 위해 스왑밋을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하는 마피아와 스왑밋 방어 세력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한, 흑, 백, 히스패닉 등 다인종이 단합한 스왑밋 방어 세력과, 마피아 세력이 맞붙은 전투가 니콜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며 방송국과 경찰, 주방위군들이 현장으로 몰려온다. 마침내 구만은 '삼촌'이 자신과 민주화 투사들을 고문 치사하던 악질 고문 경관 이란 것을 알아 차리고, '삼촌'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다. FBI-마피아간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인종 갈등의 사회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혁명을 위해, 폐허가 된 스왑밋을 뒤로 하고 베벌리 힐즈로 진격 하는 스왑밋 세력. 컨테이너 트럭에 탑승해 진격하던 스왑밋 세력은 FBI 와 경찰의 방어선을 결국 뚫지 못하고, 후미진 거리로 몰아간 FBI 의 극단적인 작전에 의해 모두 몰살당하고 만다.

FBI 와 마피아와의 경찰 폭력 조작 음모, '삼촌'과 부하들의 스왑밧 고문 상황, 그리고 FBI 의 작전에 의해 전원 몰살되는 스왑밧 인원들 장면을 촬영한 니콜의 비디오가 방송국 고위급의 결정에 따라 파기되어 역사에 묻히고, 마지막 남은 증인인 니콜과 믹키도 가차없이 제거된다.

현대사에 유례없는 L.A.폭동 이후, 일반 주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재건되는 코리아 타운 현장에는 치열한 전쟁을 겪었던 '삼촌'의 부하들이 선량한 시민의 해맑은 모습으로 상가 개점식 테이프를 끊는다.